

“광주 5월 그날의 진실 알고 싶을 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은유적 표현
김인식 감독 '그녀의 비밀정원' 22일 개봉
나주 죽설현, 5·18묘역 등 지역에서 촬영



예지원 주연의 영화 '그녀의 비밀정원'이 오는 22일 개봉한다. 사진은 나주 죽설현 촬영 장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영화 '그녀의 비밀정원'이 오는 22일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개봉한다.

영화 '얼굴없는 미녀' (2004) '로드 무비' (2002) '세상끝의 사랑' (2015)을 연출한 김인식 감독의 신작으로 한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두 형제의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광주와 나주, 정읍 등지에서 촬영된 영화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파산한 동생 한중서(이지후), 사회운동을 방관하며 재산을 지켜낸 형 한장서(최우제), 그리고 이 두 형제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해로로 도피한 장현재(예지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장서와 장현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장현재가 한중서를 만난 후 둘의 사이는 틀어지게 된다. 장현재는 한중서를 택했지만 한중서는 의문사로 생을 마감하고 이후 장현재의 행방은 묘연해진다.

한편 사랑하는 여인과 동생을 한꺼번에 잃은 한장서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던 중 어느 날 장현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그녀가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영화 속 나주 죽설현과 정읍 김명관 고택 등의 한옥씬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한장서의 부채의식을 드러내며, 형과 동생,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또

거운 사랑을 나누는 장현재의 모습은 '사랑은 가능해도 민중들의 사회운동에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들의 또 다른 일면을 나타낸다.

영화 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엔딩씬에 이르러서야 퍼즐이 맞춰지듯 풀리게 된다.

김 감독은 "엔딩은 5·18 묘역에서 촬영했다. 예지원이 아들에게 분향을 권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 장면은 예지원이 격려했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열됐던 좌우 진영과 자신의 현실도피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으로, 과거에 대한 사과와 화해의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그녀의 비밀정원'은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틀을 벗어나 말 그대로 내 자유의지로 고집스럽게 찍은 영화"라며 "촬영 내내 행복했던 영화였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또 "영화 '그녀의 비밀정원'은 세 남녀의 강렬하고 이슬이슬한 사랑과 함께 숨겨진 진실을 그린 작품이지만, 다음 작품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을 주제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그녀의 비밀정원'은 앞으로 어질 민중운동에 대한 전초작품 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영화는 개봉 전 온라인 시사회로 먼저 관객과 만날 예정이며 지난달 제11회 피렌체한국영화제에 초청돼 화제가 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며칠 전 신문을 읽다가 '인상적인' 기사를 접했다. 인구 2만 3000여 명의 시골미술관이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1950년대 작)을 품에 안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미술관'은 지난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 작품을 갤러리를 통해 7억 8550만원에 구입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박수근 미술관과 강원도 양구군은 하루아침에 미술계의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박수근 미술관이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데에는 엄선미 관장과 양구군의 '콜라보'가 있었다. 지난달 엄 관장은 한 컬렉터가 42년간 소장해왔던 '나무

들'로 '나무' 시리즈는 단 한점도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한해 평균 미술관 작품 구입 예산 3억 원으로는 도저히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군수 및 공무원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그림이라면 문화관광과에 배정된 관광예산 5억 원도 보태라며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 우여곡절 끝에 1년 예산을 몽땅 털어 '명작'을 손에 넣은 미술관과 양구군은 국내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강원도의 브랜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사를 읽고 나니, 문득 화순군 동북면에 자리한 오지호(1905~1982)기념

박수근과 오지호

와 두 여인'을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로 향했다. 엄 관장이 '나무와 두 여인'에 '눈독'을 들인 이유는 작품이 지닌 미술사적 의미 때문이다. 월북은 겨울 나무 옆을 지나가는 두 여인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박화백의 '나무 시리즈'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꼽힌다. 특히 소설가 박완서의 장편소설 '나무'에 영감을 준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실물을 본 엄 관장은 박수근 화백의 장남과 한국화 광람회 감정위원회로부터 진위여부를 검증받은 후 다음날 양구군청에 보고서를 올렸다. "미술관의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이 작품을 사야 한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2002년 박 화백의 이름을 달고 생가 인근에 미술관을 열었지만 그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데에는 2%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현재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2점은 귀로·일상·정물 등의 주제별 대표작

관이 오버랩됐다. 지난 2005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화백의 생가 터에 동지를 틀어놓은 '오지호 기념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한국 인성과 거목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화 한 점이 없어졌다. 개관 당시 유가족이 기증한 크로키 1점 이외에는 전시장에 걸린 작품 51점이 모두 모조품이다.

게다가 관장은 커녕 가능직 공무원을 배치해 시설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니 내실있는 운영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화순적벽투어와 연계해 기념관을 찾은 상당수 관광객들은 "적벽의 비경을 둘러 본 후 거장의 황량한 기념관을 본 순간 여행의 감동이 반감됐다"며 입을 모은다. 하지만 더욱 아쉬운 건 '진품없는 기념관'에서 벗어날 '장미빛 비전'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 해 예산 2500만 원이 기념관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를 방증한다. 언제쯤이면 화순군의 '담대한' 컬렉션을 볼 수 있을지.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남도문화회 '남도문학' 봄호 출간...김옥애 '할머니와...' 소개

남도문화회가 발행하는 '남도문학' 봄호(통권 36)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김옥애 동화작가와 안영옥 동화작가의 작품 '할머니와 함께 날', '실 마법사 할머니'에 대한 소개가 첫머리를 장식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옥애 작가의 작품은 "사랑이 메마른 현대사회, 효 의식의 결핍, 심지어 가족 해체가 다반사인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할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인 안영옥 작가의 작품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옛것 가운데 옷을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수고로움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정용 시인의 '들꽃', 윤영훈 시인의 '봄꽃'을 비롯해 김성백 수필가의 '나만의 '무탄'한 삶으로', 김영수 수필가의 '풍경이 있는 경전선 추억', 금계 작가의 연재소설 '성가대 아이11'가 수록됐다. 이밖에 책속의 시집 코너로 서은문학홍보이사인 이창민 시인의 '몽당연필'의 4편, 한시연구가 김성규의 '한시 명편에 얽힌 이야기', 박성에 시조시인의 '봄' 등도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스24 '물리적 거리 두기' 운동 지원 30일까지 전자책 무료 대여 서비스

예스24는 '물리적 거리 두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돌베개 출판사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전자책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스24 회원은 누구나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김보영 등의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 상수탕의 '철수 이야기' 등 돌베개의 전자책 110종을 다운로드한 날부터 15일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 (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 526-5475, 010-8621-5959	남문냉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 2길 5-4 저온저장고 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 333-2779, 010-3610-2779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볼 상품품 대량인고 남·여 20~40%세일 (일부 품목 제외) ☎ 062) 370-9258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 33-3번지 남고문편면 중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기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아 기발 맞춤 전문! 중합기발을 자연모 상품으로 종로 리폼 대어가능 ☎ 062) 227-8084, 010-3608-2943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 224-7687, 010-2611-7687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 42 (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곱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 228-1975, 010-9622-8938	우리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 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 381-0066, 010-3085-0140	팟젠광주센터 동구 금남로 47차과역전철역부근 3번출구 거동이 불편하신분, 어깨·허리·무릎·관절이 불편하신분 팟젠 자석 쿠션 신발 ☎ 062) 232-6625, 010-3640-6625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철·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 285-0444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 306-6 (구 시청위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 430-5342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 222-3118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 (누문동) 패셔너블,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 526-6153, 010-6646-7282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 464-1425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 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 383-3454, 010-2106-042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 12 (신안동 128-7번지) 무료출장 ☎ 062) 252-1119, 010-9881-292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 (중앙동 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 337-7712, 010-5288-3257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 (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 222-2516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망)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 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 334-0088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 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 222-6866		